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

모 두 발 언

2019. 7. 25.

금융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은 현장에서는 늘 부족함을 호소하며,
이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지난해 12월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2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할 과제까지 포함하면
재원확충 등 일부 입법과제를 제외하고
주요 과제는 대부분
추진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도한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II. 개인채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서민금융 개편

개인의 채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정상적인 삶까지 방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빚을 쉽게 내주는 반면,
일단 빌려준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와 관행을 형성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어렵지 않게 자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의 빚을
높은 금리로 빌리고,
실업·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평생 빚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보다는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불행에 닥친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이 관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개인의 채무에 대한 정책들도
이러한 방향 전환을 의도해 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최대 5년→3년)과 함께
금융권 협약에 기반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적용대상과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대출단계에서는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DTI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DSR을 전 업권에 도입하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중금리 대출 확대,
개인신용평가체계 정교화 등을 통해
서민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의 회복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은 시장의 공백을 메워나가기 위해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Ⅲ.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9.2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도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 또는 금융의 한쪽 시각에서는 다른 쪽 논리를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금리 대안상품과 관련하여 17%대 금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적 시각에서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실제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은 커지겠지만,

정책서민금융도 금융인만큼 금리가 낮을수록 심사요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어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용기회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수혜자는 눈에 보이지만 탈락자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에게
그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서민금융의 바람직한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금번 고금리 대안상품은
기존 정책서민금융(10% 이하 금리)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10%대 중후반 금리)도 이용하기 어려워,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500만명*에 달하는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고금리 대안상품의 출시는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상품은
저신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저신용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20% 고금리 대출 비중(금감원) : ('17년 신규) 67.9%, ('18년 신규) 48.3%

반면, 금번 상품은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적정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경우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간 가격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금리의 차별화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시범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매년 1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대부업에서 신규 공급하는 자금규모가
6~7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1조원 수준의 고금리 대안상품은
고금리 대출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부업 신규대출액(NICE자료 기준) : '17년 7.1조원, '18년 5.7조원

IV. 당부말씀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계층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추가 자금공급원으로서가 아닌
유용한 정보의 생산·공급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일선 담당직원들이
정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상품 이용자가 성실히 신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금리가 더 낮은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사다리'를 놓는 것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2일 상품출시까지 남은 한달여 기간동안
차질없이 준비를 마무리하여
무더위에 지친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